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15차	일자	2021.03.22. 18:30	장소	ZOOM화상회의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0	0	0	0	0	0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0	0	0	0	0	0	12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간호대학 재선거로 36대 학생회장단 선출됨.
경영경제대학	단운위 차원에서 다이어리 배부 어떻게 할지 방식 논의 중. 3/27(토) 오후 2시 경경대 유튜브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멘토링 콘서트 진행 예정. 유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생활 설명 영상 기획 중.
사범대학	학생회 신입 부원 모집 완료. 각 과에 다이어리 배부 어떻게 할지 논의 중.
사회과학대학	다이어리 각 학과/부가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배부 완료. 3/24에 사회과학대학 단대 학생회대표자회의 예정.
약학대학	다이어리 배부 거의 완료.
예술대학	다이어리 학과별로 배분 완료. 신입부원 모집은 완료 했는데, 인원이 많이 모여서 선발하려고 하는 중. 예술대학 자체에서 동아리 만들려고 하는데 설문조사 진행중에 있음.
의과대학	-
인문대학	4/2에 상반기 입학대회 예정되어 있어서 준비 중. 인문대학 동아리 모집 및 등록 완료. 국원 지원 마감해서 이번주 주말에 면접 진행 예정. 5월중에 체육대회 비대면으로 진행 할 예정. 학과별로 다이어리 배분 시작함.
자연과학대학	선거 없이 계속 비대위 체제로 진행 될 예정. 3/31(수)에 자연대 단학대회 예정되어 있음. 다이어리는 학과에서 알아서 배분하도록 학과별 배분 완료한 상태임. 다이어리 학과별로 알아서 배분하기로 해서 학부별로 배분 진행 중.
통일공대	학생회 리크루팅 국원, 국장 모집했는데 국원은 5명으로 모집 완료 했고 국장은 아직 면접 진행 중.
동아리연합회	동아리 박람회 행사는 끝났고 페이지는 계속 열어 둘 예정이고 굿즈 추첨 행사까지 완료. 4월초까지 굿즈 배분 할 예정.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 준비 중이고 4/9에 할 예정이며 안건이나 방식은 논의 중. 레인보우시스템에 동아리 정보 변경 요청 중.

2 보고안건

1. 총학생회장단 보고

총: 일전에 말씀드린 연세대학교와의 공동행동에서 현재 안철수 캠프와 대면 간담회 일정 조정 중. 날짜 확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2. 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신입국원 리크루팅 진행 완료

1분기 총학생회 간담회(3월31일 예정) 준비 중

중앙집행위원회	(연대사업) 산돌구름 제휴 진행 예정
	(일상복지) 총학생회 담당구역 불법카메라 탐지 완료 및 결과 보고 예정
	(전략정책) 중대중심 개편 관련 이벤트 진행 예정
	(홍보소통) 20학번 대상 푸앙 힐링키트 배부 진행 예정(3월 말)
(홍보소통) 푸앙 2차 굿즈 배부 진행 예정	
산하위원회	(졸업준비) 학위복 리디자인 TF 구성 예정(3월 말)

3 논의안건

1. 학생대표자회의 진행

- * 지난 회의 결정사항: 온라인 회의 진행
- 전학대회 / 확대운영위원회 진행 결정
- 진행 일정 논의

총: 지난 14차 회의에서는 온라인 방식을 채택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금차 회의에서는 전학대회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를 진행 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운영위원회로 진행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우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연세대학교에서는 확운위 방식을 채택해서 진행을 하였고,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지금 전학대회로 진행 할 예정이라고 확인이 되었다. 대표자분들의 의견 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먼저 말씀드리면 인문대학에서는 단운위에서 또 얘기해 본 결과 원칙대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 전학대회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정: 사과대 질의 있는데 혹시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수가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지?

총: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 3/29에 진행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우선 성균관대학교의 대의원 구성은 저희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있고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 각 과 학생회장단, 그리고 학년 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정확한 시스템은 게시가 안 올라와 있다. 아니다 있다. WEBEX 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회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올려 두셨다. 저희도 저번 주에 어떠한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학생대표자회의를 진행하면 좋을지 논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개인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자세한 결정은 차기 중운위 회의 때 하는 걸로 하겠다.

경경.정: 경경대도 전학대회로 진행하는 것에 의견 내겠다.

자연.비: 자연대도 우선 전학대회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간호.정: 간호대도 현재 상황이 전학대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다고 판단해서 전학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총: 네 다들 전학대회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총학생회장단도 동일한 입장이고 우선 이번 주 내로 시스템 파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대략적으로 돌린 뒤에 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의결은 오늘 진행하지 않고, 차기 중운위 회의 때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학생대표자회의 진행 일정인데, 우선 5월초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 내에서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시기도 중운위 대표자분들의 의견 수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대이다. 중간고사 끝나고 4월 말이나 5월초가 좋다고 생각한다.

사범.부: 사범대도 중간고사 끝나고 좋을 것 같다.

예술.정: 예술대도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네 대부분 5월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셨고, 일정 가안은 차기 중운위 회의 때 말씀을 드리고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2. 1학기 학사운영 관련

- 학사운영방식 요구방향 논의

비대면 학사 유지 / 부분적 대면 시행 등

- 학사운영방식에 따른 수업 관련 요구방향 논의

중간·기말평가 시행 관련 (대면평가 시행 시 원거리 거주생 대책마련) 등

- 학사운영방식에 따른 방역 관련 요구방향 논의

검역소 운영 및 기타 방역, 대면학사 운영 시 방역대책 (검사소 도입) 등

총: 현재 8주차까지 학사운영 방식이 채택이 되었고, 진행되고 있다. 허나 8주차 이후에 학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대를 웃돌고 있고 해서 기말고사 때까지 1학기 전체를 비대면 학사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 비대면, 부분 대면을 진행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 질의 있는데 혹시 학교 측에서 학사일정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한 거나 그런 것은 있는지?

총: 없다. 저한테 전달해주신 바는 없고 대표자분들의 의견이 수합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간담회라든지 기타 협의체를 소집을 해서 학교 본부와 논의 할 예정이다.

인문.정: 네 그리고 한 개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학사일정 정기협의체인가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총: 학사정기협의체의 구성에는 일단 동의를 해 주셨고 자세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를 할 예정이었다. 우선 학사정기협의체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지금 정리 중에 있고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8주차 이후 학사운영방식 내용을 포함해서 교학부총장에게 전달을 할 예정이다.

인문.정: 인문대학 먼저 학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 단과대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아서 회장단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론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실험 실습 과목에 대해서는 대면수업을 일부 진행

하는 것. 즉 현 상황을 1학기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고 이유를 좀 들여보자면 일단 교내에서 전면 대면을 하거나 대부분의 과목이 대면수업을 진행했을 때 만약에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일단 건물을 공유한 단과대 수업 이랑 교양 수업을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 그분이 만약에 학교 내의 여러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방문자 전원을 코로나 검사 대상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게 과연 대처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다음에 지방 거주민의 경우 현재 지금 본인 자가에서 수업을 대부분 다 듣고 계신데, 갑자기 남은 8주도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현재 기숙사도 1일 1실로 운영이 되는데 그분들의 거주를 학교에서 완벽하게 마련해줄지도 사실은 의문이다. 그다음에 현재 검역소가 정문, 중문, 후문 이렇게 세 개로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 많은 인원이 학교에 한번에 오게 될텐데 그걸 지금 세 개의 검역소로 지금의 검역절차로 모든 걸 다 검역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서 1학기 학사운영은 지금과 동일하게 이론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일부 실험 실습과목이나 대면이 필요한 과목은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게 인문대의 의견이다.

총: 그럼 현행유지 하자는 말씀이신지?

인문.정: 네

총: 네 알겠다.

인문.정: 근데 단운위 논의가 한 번 더 필요해서 회장단 생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다.

총: 네 알겠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예술대도 현행유지가 좋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경경대도 단운위 논의 진행해야할 것 하지만 회장단의 생각은 인문대 회장단과 의견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도 지금 현재 phase2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1월 3주차부터 8주째 신규 확진자 수가 300에서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 중 수도권 확진자수가 60%를, 60%이상을 육박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은 8주차 이후에도 상황이 그렇게 급격하게 호전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는 학사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인문.정: 인문대학 혹시 추가의견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총: 네

인문.정: 네 만약에 1학기 전면 비대면이 된다면 학교 측에서도 조금 이번에는 지난 년도와 다르게 좀 강력하게 온라인 강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해결책을 좀 제시해주셨으면 한다.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서 교수님들이 강의 재사용하는 교수님들도 매우 많고, ppt만 올리는 교수님들도 아직까지 많은 상황이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학교 측에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물론 맨날 교수권 재량이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엄연히 학교가 수업이나 교육권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 본사가 있고 프랜차이즈기업 그 집 가맹점이 있는데 가맹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수제만두집이라고 하면은 가맹점에서 고향만두 파는데 그거는 본사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이런 걸 관여를 안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게 인문대학의 생각이다.

총: 네 비유까지 들어서 설명해주신 것 감사하다.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사범.정: 사범대 의견 드리겠다. 사범대도 지금 현행유지 방식을 진행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일단 정부 지침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현행유지가 맞다고 생각을 한다. 일단 그런데 이것도 저희 사범대 회장단의 의견이라 단운위 회의를 좀 진행해서 좀 더 의견을 모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총: 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단위에서 단운위 의견 수합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해당 안건은 차기 중운위 회의 안건

으로 재상정 하기로 하고 현재 대학 본부에서 8주차 이후의 학사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중운위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괜찮으신지?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3. '프로젝트 탈곡기' 학생총회 소집요구

총: 프로젝트 탈곡기 단체에서 학생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메일 본문 공지사항에 올려 드리겠다.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총학생회 회칙 제13조를 보시면, 제가 올려드리겠다. 학생총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500인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반드시 소집을 해야 한다. 그리고 2항을 보시면 학생 총회의 소집은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항과 2항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표자 분들의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3일 이내 소집하는 거와 10일 전에 공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대표자분들의 의견 묻겠다.

인문.정: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얘기를 해 보자면 1항의 경우는 그 3일 이내 반드시 소집해야 된다는 명확한 조건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회원 500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3일 이내 소집해야 한다. 그래서 500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3일 이내 소집해 하는 거 같다. 그 다음에 2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있어서 총학생회장, 그러니까 의장이나 중앙운영위원회가 소집을 할 때 1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 해석이다.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생총회 소집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 회칙은 약간의 수정이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한다.

총: 이번 사항은 2항의 단서조항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일 이내 반드시 소집이 되어야한다라는 것이 인문대학 학생회장님의 의견이신지?

인문.정: 왜냐면 저 뒤에 단, 긴급을 요하는 하는 경우 예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1항과 2항의 요건이 다른 것으로 전 해석이 된다.

사과.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당 회칙이 일단 지금 회원 500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3일 내 반드시 소집을 해야 한다는 게 위와 아래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 4월 22일 날 저희가 해당 요구를 받았으면 3월 25일 이내로 총학생회장이 학생총회를 소집해야 되고 학생총회가 열리는 날짜는 3월 25일 열리는 날짜 기준으로 10일 전에 공고 되어야 한다고 해석이 되는 거 같다

인문.정: 사과대 부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부총: 소집이 학생총회가 개최되는 그 당일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오늘이 22일인데 학생총회를 3일 이내에 소집한다고 하면 25일에는 학생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10일전에 이를 공고한다고 하면 이미 일주일 전에 이 상황을 모두 예견하고 공고를 마무리했어야 하기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칙이 상충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인문.정: 그런데 사과대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말한 게 맞는지 한번 체크해달라, 22일날 500인 연서를 받으면 3일 이내 소집 공고를 올리는 거다. 그리고 10일 이내에 개최를 해야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맞는지?

경경.정: 아까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소집 자체가 학생총회를 소집하고 만나는 거 자체를 말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을지? 그렇게 되면 사과대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전히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 여기 13조 2항에 보시면 단 전항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3일 이내 반드시 소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부총: 지금 회칙을 저희가 해석을 하기 보다는, 3일 이후에 소집할지 10일 이후에 소집할지만 정하면 되지 않을까.

총: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우선 학생총회 연서명 명단 500인은 제가 탈곡기로부터 받았고, 이 500인이 중앙대학교 회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이것이 내일 중으로 이루어질지 모레 중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증이 완료된 시점 이후 3일 이내 소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오늘이 아니라 23일, 24일에 정상 접수된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3일 이내에 소집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10일 이내에 소집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표자분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동연.부: 지금 현재 사안이, 주된 사안이 등록금 관련인데 굳이 3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촉박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0일 이내에, 지금 공고를 하고 10일 이내에 소집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한다.

경경.정: 발언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쓰는 지금 회원 500명이상 이유가 있다는 거 자체가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게 긴급한 상황이다 긴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까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상접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 접수가 된 이후부터 3일 이내에는 이 조항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인문.정: 경경대 회장님이랑 동일한 의견이다.

자연.비대위: 경경대 회장님과 의견 동일하고, 우선 회칙에 따라서 500인 이상 요구가 정확히 확인되면 이미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 소집해야 하는 항목에 부합하기 때문에 500인의 회원이 중앙대 학생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소집하는 게 맞다고 본다.

통공.부: 경경대 의견에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도 경경대와 자연대 의견 동의한다.

예술.정: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이제 대부분의 대표자가 3일 이내 소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 논의를 해왔다. 우선 학생 총회 개회 조건이 본 회원의 8분의 1 이상 참석이다. 8분의 1이라는 비율이 중앙대학교 제적생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약 2,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최소인원 2,500분의 학우분을 수용하려면 어떠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살짝 진행이 되었다. 줌 계정을 여러 개 구매해서 동시 송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라이브를 송출한다든지 아니면 줌 세미나 플랫폼을 사용해서 학생총회를 진행해야 될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자분들의 묘안이 있을지?

인문.정: 줌 세미나는 1000명 이상도 수용이 가능한지?

부총: 최대 10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줌 회의처럼 설문조사 기능이 포함되어있진 않으나 지금처럼, 저도 아직 웨비나를 이용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소통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가 최소에서 최대 인원을 염두에 두고 그 사이로 수용인원을 책정해야 하는데 만약 10000명 정도라고 하면 10000명을 수용하는 데 한화로 72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웨비나 구축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양지를 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총: 학생총회 플랫폼 구축 전제 조건이 3가지라고 생각이 된다. 첫 번째로 인원수용이 가능한 플랫폼, 두 번째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거, 세 번째로 그분이 중앙대 회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실물 확인이 가능한 즉, 카메라 사용이 가능한 플랫폼이어야 하는 것 인지를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궁금한 것이 이제 학생총회를 참여하려면 회원이어야 한다. 근데 회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이제 총회 전에 필요한데 그것이 줌으로만 가능한지. 총회를 참석하신 분들이 일일이 다 학생증이랑 이클래스를 보여 주셔야 하는 건지

총: 사전에 신청서를 받고 코드를 배포한다든지 비밀번호를 배포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딱히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부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과.정: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500명의 회원이 참석을 해야 학생총회가 개최되는 것이고, 2,500명에 대한 확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구글폼을 통해서 애초에 사전 신청을 받고 사전 신청 구글폼에 각자 자기 포탈 캡처본을 업로드 하게끔, 간식 사업 진행할 때처럼 그렇게 업로드를 해서 신원확인을 구글폼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신원확인이 된 사전신청을 한 학우들에게 줌 링크를 배부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우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정말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 학생총회가 회원의 8분의 1이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 2,500명이 안 되면 학생총회 개최를 못 하는 것이지 않은가. 그래서 그 총학생회칙중에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제15조 유의해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사전신청을 받아보고 그 사전신청이 2500명을 미달할 경우에는 전학대회로 학생총회를 위임하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이 든다.

총: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15조에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도 각자 생각이 다를 것 같다. 소집은 했으나 8분의 1 이상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개최가 되지 않은 것은 학우분들이 개최가 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셨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따라서 달라질 거 같다.

인문.정: 사과대 회장님 말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전신청을 받는 방식이 이제 가장 좀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총회라는 것이 당일 날 사전신청하지 않더라도 참석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연 사전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분들에게 링크를 배포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에 대한 저는 사실 의문이 조금 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본 것이 이것도 정말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줌 계정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어쨌든 간에 총학생회장 이거 부총학생회장님이 화면에 나오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줌 계정을 여러 개 판 다음에 당일 날 줌 링크와 구글폼 링크를 동시에 총학생회와 단과대 SNS 그다음에 각 학과 단톡방에 짹 뿌리고, 줌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전부 그 구글폼에 학생증을 캡처해서 올려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제가 생각한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구글폼을 통해서 2,500명이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가 가능하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가능할지는 사실 저도 말하면서 의문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구글폼 여러 개 만들면 링크를 여러 개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링크에 만약에 쏠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도 있다. 시간차로 올리던가 뭐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인문.정: 총학생회 회칙 상 회원은 재적생인지?

총: 맞다. 재적생이다. 제 3조 참고해 주시면 된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저희와 동일하게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줌 계정을 여러 개 해서 동시 송출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생총회 방식에 대해서는 명단 검증이 완료된 시점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될 것 같다.

예술.정: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인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총회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소통이 잘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저희가 못 할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전학대회로 의견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지?

총: 탈곡기 측에서 연서명을 받으실 때 학생총회 소집을 위한 연서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500인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전학대회로 위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술.정: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한 다음에 의견을 한 번 더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전학대회로 하고자 한다는 의견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인문.정: 학생총회라는 것이 엄연히 중앙대학교 재적생들의 최고의결기구인데 최고의결기구가 성사되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총: 예대 회장님과 같은 생각을 잠깐은 해봤었는데, 방금 인문대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 바도 그렇고 저희가 만약에 탈곡기 단체와는 그 내용이 합의가 된다고 해도 연서명한 500인의 생각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한다.

인문.정: 그래서 임시회의 소집하자는 총학생회장 의견에 동의하고, 총집부 내에서도 그 소집 방법이란 그 당일날 어떻게 재적생인지 확인하는지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도 좋지만 총집부에서 한번 논의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총: 오늘도 논의했고 내일도 논의하여 묘안을 찾도록 하겠다. 그러면 임시회의 소집하는 걸로 하고 해당 안건은 이만 마치겠다.

4 기타안건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강 제한학점 완화 설문조사 공유요청

총: 공유요청 드리겠다. 설문조사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데 도움이 되니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 지난 회의에서 졸업기념품 배부 매뉴얼을 요청하셨는데, 졸준위 내부 논의를 통해서 매뉴얼은 굳이 필요없다라는 것이 졸준위의 판단이었다. 매뉴얼은 따로 구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졸준위에서 4학년 과대 연락처 취합 요청이 있다. 회의 끝나고 게시글 만들어드릴 테니 연락처 취합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다음 중운위에서 논의안건 미리 대표자분들께 이야기하고 상정하고 싶다. 지난 사회과학대학 단위요구안에서 선거지도위원회 폐지 그리고 단과대 대표자와 학교본부 논의체 마련, 대자보 검인 협의체 관련해서 요구안을 작성했다. 학교본부에서 해당 요구안에 대한 답변으로 3월 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는데, 3월이 끝나가는 데 어떤 진행상황이나 학교본부측에서 이야기한 바가 없는 것 같아서, 각 대표자분들께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단운위 논의를 진행하시고 중운위 내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체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총: 다음주에 담당하시는 분이 학생지원팀 이우학 주임님이라고 있는데 그분께 요청을 해서 중운위와의 논의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다. 또한 사과대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에 3월중에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니 다음 주 월요일 중운위 회의 때 주임님 모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괜찮을지?

사과.부: 네 감사하다.

총: 네 기타안건 없으시면 중앙운영위원회 15차 회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고생 많으셨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